

윤홍길 소설 《에미》의 모성신화 형성 연구

서 은 선*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담론 분석: 객관적 시점과 변모하는 목소리 |
| II. 서사 분석: 모성신화의 형성과정 | 1. 객관적 시점서술 |
| 1. 발단의 수수께끼 제시 | 2. 은장도 문화와 합환화의 굿판 |
| 2. 죽음 극복의 재생 의식(再生儀式) | 3. 은장도 무용론(無用論)의 민중적 모성 |
| 3. 반전(反轉)- 부계 질서의 마지막 징벌 | IV. 맺음말 |
| 4. 모성신화의 완성 | |

I. 머리말

《에미》는 윤홍길이 1980년대 초에 360 쪽 분량으로 완성한 장편소설이다. 1970년대 윤홍길은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의 연작소설과 중편 <장마>를 발표하여 리얼리즘 작가란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 논문은 대다수 이 작품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80년대 와서 장편 작가로 전환하여

* 부산대학교 강사

《에미》, 《백치의 달》, 《순은의 뉘》, 《목시의 바다》, 《낫》, 《뱀아도 아리랑》(전3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전2권) 등 장편소설을 잇달아 집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편소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¹⁾

그 중 《에미》와 《목시의 바다》(단행본 출판은 1987년), 《순은의 뉘》(1987)은 모두 모성(母性)을 강하게 추구한 작품이므로, 모성 모티프 분석은 그의 장편소설을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미》는 헌신적인 모성을 강조한 것이 전통적인 어머니 소설 같지만, 가장(家長) 부재하의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제가 결과적으로 모성신화를 형성하고 당시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측면이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에미》에서 작가는 기존 어머니 소설이 내세우던, 시련 극복이란 상투적인 플롯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그것은 발단에서 수수께끼를 제시하고, 위기와 반전에서 재생의식, 미륵 공양, 은장도 이데올로기 등의 모티프를 다양하게 내세우고, 마침내 대단원에서 모든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짜임새있는 플롯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담론 부문에서 작가는 아들인 ‘나’가 주인공인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인칭 관찰자 시점서술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서술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모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어머니를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모성을 신화화하는 데 무리가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윤홍길의 《에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성을 신화화할 수 있었는지, 그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

1) 김세원은 윤홍길이 장편작가로 전환하게 된 것을 “삶에 대한 총체성 의미 탐구가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의 결과로 보고 있다.

김세원, <윤홍길 연작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명지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6, 25쪽.

을 두었으며, 이차적으로는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모성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사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편의상 텍스트를 서사와 담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나누어 분석하면, 서사 분석에서 플롯의 각 단계가 대단원으로 점차 통합되면서 모성 신화를 형성하게 되는 서사의 특성과 주요 모티프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되고, 담론 분석, 즉 작가가 선택한 시점과 서술, 인물과의 거리 등의 서술행위 분석이 모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1990년 5월 청한문화사에서 펴낸 《에미》이다.

II. 서사 분석: 모성신화의 형성과정

작가 윤홍길은 플롯의 각 단계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조금만 제공하다가 대단원에서 모든 일을 밝히는 방식으로 모성을 신화화한다. 각 단계마다 어머니는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하는 등 초인적 힘을 발휘하면서 마침내 신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작가가 작품을 집필해 나갔던 1970년대 후반 혹은 1980년대 초 한국사회는 대기업이 발전하여 도시화와 산업화, 수출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민중들도 늘어난 수입으로 핵가정을 이루면서 소시민적인 여가를 즐겼고, 특히 도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급속도로 높아질 정도로 여권(女權)도 상당히 성장했던 시대였다. 과거로 돌아가 밥을 굶는 가난을 서술하고, 난리 통에 짓밟힌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6.25 전쟁기의 농촌 풍경을 묘사하기가 쉽지 않던 시기였다. 그래서 작가는 짓밟힌 어머니를 신화화하는 스토리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서사의 중심을 치밀한 플롯 구성에 두었다.

본래 서사의 기본적인 요소는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과 인물, 사건이 된다. 이런 요소들을 뭉뚱그려서 재구성하고 편집한 ‘진술된 이야기’가

텍스트의 서사 혹은, 서사구조인데, 이러한 서사를 가장 잘 정리하는 요소는 플롯이 된다. 플롯을 단순히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물과 사건, 시간, 공간적 구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관되면서 짜이는 텍스트의 틀로 본다면, 플롯은 서사구조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서사 분석은 플롯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또 《에미》의 서사구조에서 텍스트의 시간은 일주일 정도로서 ‘나’가 어머니 위독 소식을 듣고 귀향하여 임종을 지키는 한 주일간이 된다. 그러나 스토리의 시간은 어머니로서의 생애 사십여 년이다. 그래서 텍스트의 서사는 ‘나’가 일주일간의 현재 상황을 서술하는 걸 이야기와 현 상황과 연관된 과거 장면의 기억을 계기로 어머니의 생애. 특히 6,25 전쟁기를 요약 서술하는 ‘중심 이야기’²⁾로 이분(二分:부제가 붙어있는 장(章)마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다가 대단원에서 통합함)되므로, 주로 중심 이야기의 플롯 분석 위주임도 밝혀두는 바이다.

1. 발단의 수수께끼 제시

《에미》의 플롯의 특징은 인과관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중심 이야기에서 발단-갈등-위기-반전 등의 각 단계는 나중에서야 모두 기춘이의 출생 문제와 통합된다. 작가는 기춘이의 출생을 수수께끼로 처리하다가 대단원에서야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걸 이야기의 발단에서 수수께끼를 던지는 방식은 일단 효과적이다. 약간의 암시가 있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서사는 긴장을 유지하

2) 흔히 액자소설에서 서사는 걸 이야기와 속 이야기로 구분된다. 그러나 《에미》는 전통적인 액자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장(章)마다 부인물이면서 서술자인 ‘나’의 현재 상황을 서술하는 비중이 크다. 작가가 ‘나’와 현실의 비중을 높여서 어머니의 과거에 머물게 되는 액자소설의 형식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어머니에 관한 서사는 ‘속 이야기’ 대신 ‘중심 이야기’란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기 때문이다. 독자는 호남 사투리와 속어로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발단 부분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동시에 끝까지 읽어서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

발단의 수수께끼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귀향한 ‘나’에게 어머니 머리맡에서 이모가 한 마디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모가 녀두리를 만류하는 기준이 부부와 실랑이를 벌인 직후이다.

“오오나, 요 두역시니같이 복장이 시커먼 것들! 니년 눈엔 손톱이 달리고 니놈 눈엔 칼이 들렸고나야! 감히 어따 대고, 누구 앞이라고 감히 손톱으로 할켜대고 칼을 휘둘르는 거냐야! 느그 엄니, 느그 시엄씨 죽고 나면 내가 달팽이술가락 하나라도 집어갈까미 느그덜이 시방 우리 친동기간 이간붙이는 줄 내 안다야! 당장이라도 내 입 하나 병끗하는 날이면 기절초풍허고 나자빠질 것들이! 어따 대고! 누구 앞이라고! 가암히!” (36쪽: 굵은 글씨체는 필자, 이하 같음)

“성님! 어째피 이판사판인디 **나 요것들 듣는 자리서 죄다 확 불어버릴라요!** 삼십 년이 다 되드락 입에다가 독바느질을 허고 지내느라고 나는 셋바다에 백태가 앉어도 멧 겹은 앉았는데, 고런 은공도 몰르고 요것들 사람 팔씨가 어찌 이리 우심힐 수가 있디요?” (37쪽)

하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머니의 웅얼거림을 듣자 이모는 풀이 죽는다. 어머니는 “입주뎡이를 짝 찢어죽일 년”이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강한 의혹을 지니게 된다. “우리들에게 불어버리려던 그 얘기가 도대체 뭐니까?”(38쪽)하며 추궁하지만 이모는 판전을 부릴 뿐이고 ‘나’의 의혹은 반전을 거쳐 대단원에서야 해결이 된다.

발단에서의 수수께끼 제시는 ‘나’가 중심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행적을 소상하게 회상하고 전달하는 계기가 된다.

2. 죽음 극복의 재생 의식(再生儀式)

중심 이야기에서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가 사팔뜨기여서 첫날밤부터 소박당한 일이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발단은 민족 간의 전쟁 6.25로 인한 것이다. 전쟁은 어머니에게 소박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요구하는 급박한 위기 상황을 형성하였다. 우선 어머니는 전쟁 중 갖은 정성으로 살려낸 남편,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다.

명색뿐이긴 하지만 그나마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한테서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고 꼬박이 이틀을 굶었다. 나를 밖으로 내쫓은 다음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이켜 전에 없이 한나절을 대판거리로 싸우던 끝에 그가 뒤도 안 돌아보고 횡하니 뛰어나가 버리자 어머니는 삼시에 지푸라기 한 날 들어올릴 기력도 없는 완전한 폐인이 되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길거리에서 기총소사에 맞아 죽은 어떤 시체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었다. [.....] “기범아, 기범아, 너 에미랑 같이 안 죽을래?”[.....] 머리끝이 쭈뼛 곤두서는 느낌과 함께 나는 느닷없이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우격다짐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내 뇌리에 터를 잡아버린 죽음은 갖가지 험상스런 물골을 하고 있었다.(p.120: 굵은 글씨체 필자, 이하 같음)

죽음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면서 울어대는 ‘나’ 로 인하여 어머니는 고향인 익산군 삼기면 연담리에서 제일가는 부자인 큰외삼촌을 찾아간다. 하지만 외삼촌조차 다짜고짜로 도리깨를 휘두르며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나가 죽거라야! 욱되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야! 은장도가 없거든 용당방죽에 빠져서라도 죽거라야!”(126쪽)라고 외치며 절연을 선포할 뿐이다.

내포작가는 외삼촌의 절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단지 “기범이 아부지가 그저갯밤에 오라부니를 만나고 갔다야!”(126쪽)라는 이모의 암시로 미루어 가부장적 질서와 관계있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머니에게 외삼촌이 “욕되게 살기보다 죽어라”고 강요했다

는 점이다. 어머니는 지주의 딸이란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생과부 처지로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는 ‘욕된 삶’을 펼치는 일만이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몇몇한 죽음보다는 ‘욕된 삶’을 선택하였다. 돌맹이에 벗은 옷을 싸서 허리띠로 보따리를 만들어 손에 쥐고 물에 들어가는 죽음 의식(儀式)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살얼음이 낀 얇은 물에 발목을 적시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어머니의 손을 마구 뿌리쳤다. 잠깐 물러가 있던 죽음이 전보다 더 험악한 물골로 나를 확 덮치려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손아귀에서 놓여나 멀리 도망치고자 마구 울부짖고 발버둥쳤다.

[.....] 사타구니가 물에 잠겼다. 배꼽이 잠기고 가슴이 잠겼다. 드디어 목까지 물에 잠겼을 때, 나는 금세 까무러칠 것만 같은 혼미 속에서 죽음의 목소리를 들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아라!”

나는 옷 꾸러미를 물 속에 떨어뜨렸다.

“됐다. 다 끝났다. 어서 물 밖으로 나가자”

[.....]

“기범아, 너는 오늘서부터 한 집안 가장이다. 사내대장부는 그렇게 아무 때나 함부로 우는 법이 아니다.” (131-133쪽)

옛날부터 인간은 가장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에게 목숨을 맡기고 자신을 추스르는 의식을 행하는 일로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엄동설한에 용담 못에 들어가 죽음의식을 치르는 행위는 신에게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서 생사여부를 묻는 일종의 희생제의(犧牲祭儀)였는데, 신은 물이 지닌 생명력으로 어머니의 죄를 씻어주고 삶에 대한 투지를 일깨워주었다. 어머니는 희생 제의로 ‘욕된 삶’을 정화(淨化)하는 정화의식을 치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희생 제의는 일차적으로는 죽음을 강요하던 외삼촌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앞으로 펼칠 ‘욕된 삶’ 자체가 바로 몇몇한 삶임을 알리기 위한 재생의식(再生儀

式)인 것이다.

재생의식 이후에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는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굶주림과 가난과의 처절한 투쟁이기도 하였다. 전쟁 중 일가가 몰살당한 흉가에 거처를 정한 후 품팔이를 하면서, 만삭의 어머니는 때로는 ‘나’와 먹을거리 다툼을 벌이기도 하남의 닭도 몰래 먹는 ‘육된 삶’을 살았지만, 당당했다. 산파의 도움도 거부하고 홀로 난산(難産) 끝에 기춘이를 해산하는 초인적인 어머니 형상은 ‘나’의 기억의 압권이다.

① 문고리에 붙잡아맨 튼튼한 ㄷ나뿔을 양쪽 손아귀에 감아쥔 채 어머니는 상처받은 짐승의 마지막 순간과도 같이 전신을 무섭게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파랗게 불이 켜진 사팔눈을 칩때 천장의 어느 한 곳을 뚫어져라 쏘아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입엔 겹겹으로 접은 수건이 물려 있었으며, 입술 밖으로 나온 윗이빨이 두꺼운 수건을 뚫고 살을 깨무는 바람에 아랫입술 언저리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피가 수건을 새빨강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처럼 끔찍한 몰골을 하고서도 짝소리 한 마디 내지 않는 어머니가 나는 더욱더 두렵고 괴상하게만 느껴지는 것이다.(157쪽)

② 하지만 어머니는 방안을 억누르는 무거운 공기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윗이빨로 힘껏 깨물어서 낸 깊은 상처를 아랫입술 언저리에 지닌 채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엔 승리자로서의 너그러운 미소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만이 가지는 터질 듯한 환희가 가득히 번져나고 있었다.(159쪽)

난산의 어머니는 인용①처럼 ‘짐승’같이 보이다가도 마침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춘이의 출생을 아무도 반기지 않는 무거운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②처럼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러한 장면 묘사는 강인한 어머니상을 모성신화와 연결하기 위한 작가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생의식 이후 어머니는 가부장적 부계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기춘이를 축첩 투서 등의 투쟁으로 절연한 남편의 호적에 올린 것이 그 한 예이다.

3. 반전(反轉)- 부계 질서의 마지막 징벌

서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외삼촌이 왜 은장도를 내세우면서 어머니에게 죽음을 강요하였는지는 계속 수수께끼였다. 화자인 ‘나’는 위기 이후에 ‘욕된 삶’을 떳떳하게 맞이들이면서 현실과 투쟁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의혹을 되살려낸다. 어머니의 욕된 삶이란 남들의 입방아는 무시하고, 품팔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고리대금도 하고, 때로는 채무 상환을 못하는 이의 옥답을 머슴 판길이의 도움으로 빼앗는 등, 악착스럽게 재산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무렵에 어머니는 연담리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산을 이미 일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된 어머니는 ‘나’의 주선으로 삼십 년간 의절하고 살던 큰외삼촌의 방문을 받고 화해까지 하였다. 어머니의 욕된 삶을 외삼촌이 인정하고 존경하게 된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생과부로 살면서 죽음을 거부하고, 두 아들을 반듯하게 키웠으며, 큰 재산을 이룩한 행복한 어머니이다.

그러나 내가 지닌 의심은 결국 생과부 어머니의 정절에 관한 것으로, 해결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내가 속임수를 써서 이모에게 들은 사실은 의외로 어머니와 판길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기춘이가 ‘미륵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다.

어머니의 ‘욕된 삶’의 근원은 전쟁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희생양이 된 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난리통에 짓밟힌 여인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 본인은 짓밟힌 몸으로 여기지 않고 미륵에 관한 신화적 상상력을 보태면서 미륵을 육신으로 공양하는 의식으로 여겼다. 스스로 만든 희생 공양이다. 어머니는 전쟁 중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반동

분자를 처단한다는 소식을 금산사에서 듣자, 전주를 향해 떠나는데, 어둠이 올 무렵 전주 근처 숲에서 폭격을 피하다가 미륵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이다. “니 남편을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하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어마지두인데도 옆으로 바짝 다가드는 그 사람이 깽뚱뚱이 만한 몸집의 거한인 것을 폭탄의 섬광으로 얼핏 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미륵님, 인간의 몸으로 헌신하여 도솔천으로부터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미륵존불 바로 그분이었다. 하필 그런 상황 그런 시간에 미륵님이 무슨 일로 미천한 자기 앞에 납시었는지도 어머니는 벌써 확연히 알아차리고 있었다. 자신의 신심을 시험해보려고 오신 것이었다. 미륵님은 곧 산과도 같은 무게로 다짜고짜 덮쳐오더니 나무들을 가리고 나중에는 하늘까지 온통 다 가려버렸다.(263쪽)

이제 수수께끼의 절반은 풀렸다. ‘나’는 기준이가 ‘미륵님의 어들’로서 아버가 다른 동생이란 비밀을 알았으므로, 서사는 대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작가는 신화 형성에 필수적인 반전(反轉) 단계를 마련하여 텍스트에 흥미를 보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기를 안겨주면서 어머니를 시험한 것이다. 혼불이 나타나서 임종이 임박한 순간이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어머니는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위기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사생아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어머니에게 부계 질서가 가한 마지막 징벌이 된다.³⁾ 당시 한국에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라캉이 말한 바 있는 상징계

3) 이 논문에서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순결 혹은 정절 이데올로기로 한정하였다. 가부장제의 본질 규명은 분량 관계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가부장제에서는 지위가 불평등한 결혼을 통한 성적 결합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은 성적 자율권과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마련이다.” - 김원홍/이인숙/권희완 공저,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98쪽.

의 법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전쟁의 희생양이던 어머니가 오랜 세월 생과부로 살면서 키워준 은혜를 망각한 ‘나’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수호자가 되어서 그 무의식적 징벌을 기춘이에게 행하였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기춘이가 동네 밖으로 뛰쳐나가 나무에 머리를 박아 피투성이로 울부짖는 등, ‘원시인의 목소리’를 내며 밤낮을 질주하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상해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내가 기춘이에게 전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해서 기춘이를 쇼크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다. 기춘이에게 준 쇼크였지만 실상은 부계 질서를 무시하고 사생아 기춘이를 소중하게 사랑한 어머니에 대한 압박이었다. 또한 처자식을 버린 ‘그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면서 아버지의 법의 질서 속으로 밀어넣고, 정작 ‘나’의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던 어머니의 어리석은 집착을 비난하는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빛은 징벌이기도 했다.

4. 모성신화의 완성

대단원은 사건이 종결되는 단계이다. 발단의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리고 인물간의 갈등이 종결되며, 독자들의 의문과 긴장이 해소하는 단계이다. 작가는 반전 단계에서 어머니에게 나타난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을 신화화한다.

우선 어머니는 ‘나’의 적자로서의 오만함을 꾸짖지 않고, 내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불만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포용하였다.

“기범이 너는 정정당당한 적자로서 너대로 거구에 맞게 키울라고 애썼느니라. 그리고 기춘이 가는 또 가대로 당초부터 허물딱지 덮어쓰고 나온 액운을 가늠혀서 으떻게든 그 험집을 뺏질혀줄라고 이 에미는 악착을 떨어나왔느니라. 그러는 에미가 너한테는 두고두고 야속했을 것이다 마는.....”

“아닙니다, 어머니님.”

“아니기는 뵈이 아니란 말이냐. 너를 내 속으로 맹글었ندی 명색이

에미란 것이 니 맴자리 하나 못 더듬을 줄 알았느냐?”(302-303쪽)

또한 기춘이의 상처를 타격으로 여기지 않고, 기춘이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춘이댁을 위로하였다.

“아버지는 참말로 암시랑도 앓느니라. 나는 느이 애비한테 쇠심줄보담도 찢기다찢긴 목숨을 주었느니라. 나는 느이 애비를 애릴 적부터 자갈밭머리 바라구풀마냥 역새마냥 끈질긴 사나로 키웠느니라. **이 에미가 가진 것을 몽땅 다 가한테 쏟아부었느니라.** 폭탄이 평평 터지는 밤중에 술냄새 풀냄새 병글어지는 칠혹같은 어둠 한복판에서, 맨땅이라 흙냄새 속에 누워서 **누구 찢지도 몰르고** 가를 내 속에다 덩씩 품었느니라. 아버지는 따뜻한 비단 금침 속에서 언제 생기는지도 몰르게 실무시 생기는 따른 희미한 목숨들허고는 그 태생부터가 원관 틀리느니라. 누가 가를 집채 만한 바윗돌로 짓눌러봐라. 납작하니 터져서 고닥새 죽고 말 것 같지만,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306쪽)

그런데 어머니의 말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이모의 전언과는 달리, 어머니가 기춘이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그의 원시적 생명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춘이를 ‘미륵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누구 찢지도 모르고”란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6.25라는 민족사적 전란에서 운명적으로 겪은 시련 속에서 터득한 지혜와 이성”이 “평생을 붙잡고 매달려나온 그 미륵님을 드디어 해방시켜준 셈이다.”(308쪽) 이렇게 미륵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모습은 모든 오욕과 영예를 미륵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뒹으로 뒤집어쓰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머니는 기춘이의 출생이 남편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제외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의지의 결과로 돌렸고, 그로 인한 ‘욕된 삶’조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빚어진 시련이 아니라, 자신이 신명이 나서 치른 풍족한 삶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친년 늘 뛰듯기 살아온 뽕생이지만서도, 그것도 내가 자청해서 순전히 내 신명바람으로 내가 운전하고 여기까장 당도헌 뽕생이니까 눈꼽만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우에 뵈이 더 필요허겠내. 내 멋대로, 내 혀고 짚은 대로 살아왔고, 내가 뜻허는 바를 죄다 이뤘으니께 나는 아무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 나는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한다. 나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미륵님께 감사한다. [.....] 이렇게 곱게 죽을 수 있는 것을 느이들은 당최 슬퍼허들 말고 축복허주는 것이 당연허다.”(351쪽)

이제 어머니는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평생동안 의지하던 미륵 신앙을 내던지면서, 자신의 희생조차 뜻대로 살아온 결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어머니는 인간의지로 남편과 오빠와 아들이 휘두르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운명을 완전히 초극했다는 점에서 신을 떠난 인간 주체의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인간의 오욕과 칠정을 해탈한 부처의 경지를 보이고 있다. 모성신화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으로 완성되었다. 작가는 대단원에서 임종의 어머니를 신적 경지로 형상화하여 모성신화를 형성한 것이다.

플롯의 짜임새를 본다면, 대단원에서 작가가 모성을 신화화한 것은 인과적 구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위기, 반전의 단계 틈틈이 어머니가 ‘육된 삶’을 떳떳한 삶으로 여기도록 재생의식을 단행하고, 난산(難産)의 위기를 극복하는 초인적 힘을 보여주고, 판길이에 대한 동네 소문에도 당당하게 대응하는 등 가부장적 질서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무르익은 1970년대에 윤홍길이 형성한 모성신화는 원형이 되어야 할 전통적인 여신 신화와는 차이가 있다.

본래 신화는 역사 이후 인간이 신적인 힘을 강렬하게 욕망하여 추구한 흔적으로서, 인간의 문화적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에른스트 카실러는 신화의 세계를 “행동과 힘, 그리고 상반된 세력의 세계, 즉 아주 극적 대상으로들에게서 힘이 감지되며, 신화 창조자의 감정에 따라 그 일상의 모

습이 바뀐 세계”라고 하였다.⁴⁾ 또한 여성학 이론가인 아드리엔느 리치는 고전 인류학자인 제인 해리슨을 거론하며, 신화는 상상력으로부터 “분명하고 명확하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환경에 대한 대응, 정신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즉 신화는 “어떤 필요, 바람을 표현한 것”⁵⁾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극적인 힘의 표상인 신화는 신화 창조자의 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작가는 어떤 형태의 모성신화를 창조한 것인가?

우리나라 무속신(巫俗神)인 삼신의 등극 신화는 인간의 딸인 명진국 애기씨가 시합에서 동해 용왕의 딸인 동해 용궁 애기씨를 물리치고 삼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시합은 나무동이에 담긴 물을 은동이에 온전히 옮겨 담는 것이고, 두 번째 시합은 꽃씨를 잘 가꾸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이었다.⁶⁾ 여성이 생명을 잉태, 출산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생명이 현실세계에 적응해서 활짝 필 수 있도록 인내로서 시련을 견뎌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현신적인 어머니상(像)에 관한 신화이다. 그러나 작가는 현신적인 어머니상 이상의 것을 모성신화에 내포하고 있다. 그가 추구한 모성신화는 전쟁과 제도가 가한 위기와 운명을 스스로 초극할 줄 아는 이성과 인간 주체의 표출도 동시에 갖춘 신화이다. 필자가 보건대 윤흥길이 산업화시대에 창조한 모성의 주체성은 여신신화보다는 오히려 아도르노가 오딧세이 신화에서 찾은 인간 주체성과 유사한 것 같다.

오딧세이가 간지를 써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여러 신의 분노로, 10년간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방랑하면서 죽을 고비를 겪은 것은

4) 리처드 체이스, <문학으로서의 신화>, 김병옥/김영일/김진국/최정무 역,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127쪽.

5)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113쪽.
세계가 모성을 강하게 필요로 한다면 여신 신화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황경숙, 「영동할미와 삼신할미에 대한 명상」, 《여기》 3호, 부산 세종출판사, 2005, 여름, 59-60쪽.

《에미》에서 난리통에 희생양이 된 어머니의 체험과 유사하며, 둘 다 그 위기를 신의 도움으로 극복한 것 또한 유사하므로 필자는 아도르노가 쓴 논문 「오디세우스 또는 신화와 계몽」에서 모성신화의 원형적인 속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도르노는 역사 사회를 신화가 사라진 계몽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인간이 신화의 세계를 상실하게 된 것은 인간 인지의 발달, 즉 인간의 ‘도구적 이성’(奸智)이 신적인 힘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적인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학의 영역으로 추방되었으며⁷⁾, 오딧세이에게서 ‘신화와 계몽의 대립’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트로이에서 이타카로의 험난한 귀향길은 자연의 힘에 비해 육체적으로 무한히 허약하며, 이제 자아의식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자아’가 신화를 통과하는 길이다. **자아가 싹트기 이전의 세계는 자아가 헤쳐 나가야 할 공간으로 세속화된다.** [...]자연 앞에서는 무한히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바다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주인공은 그러한 자신의 ‘무기력한 능력’으로 신화적 힘들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성숙한’ 인간은 신화 속에 있는 분명한 허위적 요소를 자각하게 된다. 그는 바다에도 육지에도 마귀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귀 이야기는 전승되어온 민간 종교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다.(『계몽의 변증법』, 82쪽)

그래서 아도르노는 “자아는 모험을 두려워하며 모험 앞에서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강인한 자아, 즉 통일성을 부정하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갖게 되는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⁸⁾라고 하면서 오딧세이가 다양한 경험세계에서 이룬 자아의 통일성으로 신화의 세계를 헤쳐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아도르노에 의하면 오딧세이

7) 아도르노는 ‘계몽’이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것,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을 ‘가상’으로 여기고 문학의 영역으로 추방한다고 하였다. M.호르크하이머/Th. W.아도르노(김유동,주광석,이상훈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6), 29쪽.

8)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같은 책, 82-83쪽.

는 인간적인 모험을 통해 자아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성을 성취하여, 성공적으로 귀향했다는 점에서, 신적인 경지를 뛰어넘은 계몽의 세계를 산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렌의 유혹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오딧세이의 이성과 경험, 자아의 분열을 막은 주체성 등은 보통 인간이 넘어서기 어려운 인간의 지로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신성(神性)에 가까운 경지로 인정할 수 있다.

윤홍길 「영동할미와 삼신할미에 대한 명상」, 《여기》 3호, 부산 세종출판사, 2005, 여름이 형성한 모성신화도 결국 이러한 인간의 지를 보여준다. 즉 《에미》의 어머니는 대단원에서 오딧세이 신화처럼 분열된 자아가 통일된다. 가부장적 질서를 수호하면서 징벌을 가한 아들을 조금도 흔들림 없는 이성으로 포용한다. 난리통에 짓밟힌 위기를 미륵의 신력에 의존하면서 미륵 공양이란 희생 제의로 미화하고, 합환화의 굶판을 벌이는 등 자아의 분열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임종시의 마지막 위기에는 미륵을 훌훌 던져 버리고, 그 모든 시련이 자신이 신명바람으로 선택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운명에 대한 한과 원망을 완전히 초극하는 모습은 인간 주체성의 결정판이면서,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뛰어넘는 신적인 경지이다. 결과적으로 《에미》가 형성한 모성신화의 속성은 인간의 의지와 이성, 통일된 주체성을 강조하는 작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담론 분석: 객관적 시점과 변모하는 목소리

담론(Discourse)은 작가가 자신의 세계관과 주제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서술행위이다. 작가는 시점과 서술, 내포작가와 인물 간의 거리 설정에 고심하면서 메시지 전달에 신경을 쓰게 된다. 《에미》에서 모성을 신화화한 것은 결국 어떠한 생명이든지 간에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 당당하게 키워야 한다는 민중적 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객관적 시점서술, 내포작가와 주인공인 어머니와의 적절한 거리 설정, 은장도 문화에 대한 목소리 변화 등 서술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작가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객관적 시점서술

《에미》에서 시점의 주체는 주인공인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인 ‘나’이므로, 텍스트는 일인칭 관찰자 시점서술이다. ‘나’는 나의 시각으로 행동의 주체인 어머니를 관찰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서사를 진행하는 화자가 된다. 그러나 ‘나’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화자인 ‘나’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은 어머니나 외삼촌, 이모의 시각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작가가 아들을 화자로 선택한 것은 내포작가와 인물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어머니의 걱정적인 내면심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어머니를 신화화하기에 편리하다.

이들테면 사건의 발단인 남편의 배신은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상황에서 사팔뜨기 규수와 전답 문서 지참금은 가난한 수재의 자존심과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수재는 전답문서를 미리 챙겼다가 결혼 며칠 뒤에 혈값으로 팔아치워 그 돈으로 서울로 가서 전문대학에 입학하고 새장가도 들어서 호적에 사팔뜨기 아내의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파렴치하지만, 이승만 정부에서 도지사가 될 정도로 출세를 한다. 이 경우에 작가가 아들인 ‘나’의 분노는 조금씩 서술하게 하지만, 어머니의 심리는 끝내 서술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서술행위는 결말이 있는 대단원까지 작가의 메시지 전달과 세계관 표출을 지연하려는 의도이다. 즉 남편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니면서 ‘육된 삶’의 책임을 어머니 스스로가 짊어지는 모성의 신화화를 위한 것이다.

2. 은장도 문화와 합환화의 구분

텍스트에서 가부장적 질서는 정절 이데올로기 혹은 순결 이데올로기로 대표된다. 그래서 작가는 문학적 장치로 은장도 모티프를 네 번 등장시킨다. 은장도 모티프는 우리 가부장 문화의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차별화하는 작가담론을 선보이고 있다.

은장도 문화는 두 번 외삼촌의 목소리로 등장하는데, 어머니와 절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를 수시로 꾸중하면서 훈육해 왔던 외삼촌은 어머니 임종 시에 방문한 ‘나’에게 뜻밖의 말을 한다.

“너도 몰르고 나도 몰른다. 용당방죽 같고 미륵산 같은 느이 에미 그 속내는 아무리 영험한 족집게 점쟁이라도 못 짚어낸다. 느이 두 모자가 요 동네로 쫓겨들어올 당시만 허드라도 나는 내 집안에 단 한 자루백에 없는 은장도를 한탄했었니라.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께 넓은 세상엔 은장도보담도 더 잘 드는 칼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사 제절로 알게 되더라.”(65쪽)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욕된 삶’을 외삼촌도 떳떳한 삶임을 인정하면서 은장도 문화의 의미 없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은장도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애욕과 훼손을 단죄하던 도구였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생과부가 되면서 진작에 은장도 문화를 내던진 것을 회상한다.

그 자귀나무가 갑자기 움직여 꽤액 꽤 뜻 모를 고향을 지르면서 산정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치달기 시작했다. [.....] 그야말로 광란의 무도였다. 격렬한 동작으로 말미암아 웃고름이 풀어져서 저고리 앞섶이 뻥히 열려 있었다. 말기와 끈으로 젓가슴 부위까지 뽕뽕 동여맸던 치마는 이제 가까스로 허리통에 걸려 있었다. 비녀는 어디로 없어졌는지 아무렇게나 풀어헤뜨린 긴 머리칼이 어깨 위에서 출렁거렸다. 한 송이도 남김없이 분홍꽃들은 다 떨어져 달아나버렸다. 그대신 어머니 자신이, 어머니의 몸뚱이 전체가 어느새 커다란 분홍꽃으로 화하여 비친 듯이 훌쩍

홀쩍 공중으로 솟구치는가 하면 또 팽이처럼 빙글빙글 맴돌이를 하는 중이었다. 필렁거리는 옷깃 사이로 한 쌍의 팽팽한 젓가슴이 아래로 내려쉴 듯이 힘차게 덜렁거리고, 번쩍번쩍 들리는 겨드랑이 아래로는 신비의 너울을 건어버린 뺨안 살격과 거뭇거뭇한 거웃이 얼른거렸다. 눈에서는 불꽃이 사정없이 튀고 입에서는 ‘얼썩썩’하는 외침이 계속 터져 나왔다. 얼굴은 온통 핏빛으로 상기되어 있고, 전신이 기름 같은 땀에 젖어 옷 밖으로 드러나는 살결마다 매끄럽게 번들거렸다. (p.88)

평소에 생활과 투쟁하던 어머니가 미륵산에서 ‘나’에게 보인 ‘광란의 무도’는 그야말로 은장도가 강요하던 금욕의 문화를 무시하고 애욕을 그대로 표출한 춤이었다. “끈적끈적하면서도 왁지 모르게 용수철처럼 배배 뒤틀린 것 같은 기묘한 향기”를 지닌 자귀나무는 합환목(合歡木)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공양을 하면서 마신 술의 힘을 빌려서 합환화(合歡花)가 되어 굿판, 제의(祭儀)를 벌이고, 미륵 신을 섬기는 신녀로서 신명을 다해 신무(神舞)를 추는 중이었다. 얼마나 광란의 무도였던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나’는 ‘사팔뜨기 자식’이란 말도 고통인데, ‘미친 년 자식’까지 될 수 없다며, 울음을 터트렸던 것이다.

어머니의 광란의 무도는 겉으로는 생과부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은장도로 애욕을 끊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면에서 불타던 애욕을 분출한 것이다. 그래서 은장도와 합환화 굿판의 대조적인 모티프를 통해 작가는 의도적으로 욕망 단절의 은장도 문화와 욕망 분출의 굿판이란 대립구조 형성을 시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성이 아닌, 오직 신에게 욕망을 분출하는 모티프는 가부장적 질서의 세계가 생과부의 여성성을 거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의 애욕을 통제하고 정화해 주면서 오로지 자식의 양육에만 신경쓰도록 하는, 그래서 ‘은장도보다 더 잘 드는 칼’을 품도록 해주는 상징계의 사회적 관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은장도 문화 대신에 합환화의 춤으로 애욕을 분출하고 카타르시스하는 모습을 작가가 어린

화자인 ‘나’의 서술로 전달한 것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것처럼 위장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결국 합환화의 굿판 서술은 여성의 애욕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위기상황에서는 남성과의 교합을 염원하는 여성성을 억제해야 모성이 보존된다는 모성신화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3. 은장도 무용론(無用論)의 민중적 모성

원래 어머니는 외삼촌처럼 가부장적 정절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였다. 임진왜란 때의 한 조상 할머니가 왜군들에게 사로잡히자 정절을 지키려고 은장도로 자결했다는 내용을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나에게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어머니의 입장은 전쟁을 겪으면서 바뀐다. 외삼촌의 죽음 강요를 거부하고 ‘욕된 삶’을 당당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어머니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의 목소리는 은장도 무용론(無用論)으로 표출된다.⁹⁾ 4.19 혁명에 동참하려는 나를 붙잡기 위하여 상경한 어머니는 밤새껏 ‘나’를 귀향시키려고 설득하다가 마침내는 목까지 조르면서 위협하였다. “한번씩 당월 적마다 너도나도 다 은장도를 빼든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 난리통에도 안 죽고 살 어남은 어린것들을 거들 손은 있어야 한다. 송년이 지나간 후에 그래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빈 논밭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연후라야만 은장도도 값이 나가는 법이다.”(p.197)하며 설득하던 어머니는 ‘나’를 찾기 위하여 용감하게 총탄 현장을 누볐고, 정작 ‘나’는 총알의 공포에 질려 울면서 숨어 있다가 일찍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를 은장도 무용론으로 위로하는 어머니는 자식의 목숨만이 소중한다는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9) 은장도 무용론은 정절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모성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성적인 욕망에 무관심하다는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모성신화의 근원적 모순이기도 하다.

작가 윤홍길에게 민중 이미지는 <아홉 쉼테의 구두> 연작의 오 선생에게서 보듯이, 정치적 변혁기에도 오로지 가족의 생계만이 염려되는 소박한 가장(家長)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 소박한 가장이 《에미》에서 명분이나 이상을 버리고,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 보호하려는 모성으로 변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장도 무용론 서술은 정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유하는 지식인의 혁명론을 거부하는 민중적 모성을 메시지로 전달하려는 작가의 서술행위에 해당된다.

본래 가부장 사회에서 문학이 모성을 떠받들게 된 경우는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던 제3 세계가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민족을 살릴 인재 양성과 자연적 생명력을 여성에게 강조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¹⁰⁾ 우리 소설사에서는 1930년대 이태준의 장편소설 『성모(聖母)』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들 철준이를 굳이 사생아로 키우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일꾼으로 보내는 안순모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나라 없는 식민지 상황이 아버지 부재와 같다고 일깨워주는 신여성이었다.

텍스트 《에미》는 『성모(聖母)』와 같은 계몽적 소설은 아니지만, 시대적 배경이 민족이 위태롭던 고난의 시대와 무관하지는 않다. 일제강점기와 6.25, 4.19를 겪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미》의 어머니는 『성모』의 철준이 같은 인재가 아니고 기준이 같은 무명의 생명일지라도 소중하게 길러야 한다는 새로운 민중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주의 딸로서 은장도 문화를 부정하고 혐집투성이 기준이를 미륵의 아들로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어머니의 생명의식의 배경은 무엇인가? 작가는 그 원천을 미륵 신앙으로 돌리고 있다.

10) 예를 들어 “인도에서 신여성의 정신적 역할은 힌두문화의 우수성의 표식일 뿐 아니라 여성들이 새로이 획득한 자유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도 신여성의 여성성의 경우 ‘남성성’을 입증하려는 인도 남성들의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족 내의 전통적 가부장적 관계를 고수하였다.”-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35쪽.

본래 미륵은 삼국시대 신라, 백제에 전래하여 지배계층은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하면 미륵 부처가 계신 도솔천에 왕생한다는 미륵상생경을 신봉하는 경향도 지니게 되었고, 이후 변혁기에는 미륵이 용화교주¹¹⁾로 하생한다는 사상¹²⁾이 정치 개혁이나 혁명론과 연관되면서 민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¹³⁾, 강일순을 창시자로 모시는 증산도나 대순진리교와 같은 신흥종교¹⁴⁾의 발원지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익숙한 미륵 신앙은 민중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복신앙이었다. 즉 샤머니즘에 가까울 정도로 미륵은 민중이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부성(父性)적인 존재이다.

텍스트에서 어머니가 신봉하는 미륵도 무가(巫歌)에 등장하는 신¹⁵⁾, 샤머니즘의 신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⁶⁾

-
- 11) 고 은, 미륵신앙과 민중, (문학과 지성 35호, 1979, 봄호), 163쪽.
 12) 김상룡,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3, 130쪽 참고
 13) 1916년 창립한 원불교는 교단의 재정적 기반이나, 신도들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여, 미륵의 이상향은 신도 개인의 노력과 종교적 수양에 의해 이룩된다고 하였다.-백승중, 「한국에서의 미륵 신앙의 역사적 전개」(원불교사상 21호, 1997, 12), 553쪽 참고.
 14) 모두 전북 고부의 증산 강일순이 1901년 천지의 대도(大道)를 깨달은 데서 출발한다. 증산은 미륵을 자처하였고, 천지공사(天地公事)로 이상적 불국토인 용화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김상룡, 같은 책, 213-214쪽 참고.
 15) “옛날, 옛 시절에 미륵님이 한쪽 손에 은쟁반을 들고 한쪽 손에 금쟁반을 들고 하늘에 기도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금쟁반에도 다섯이요, 은쟁반에도 다섯이라. 그 벌레들을 길러서 금벌레는 사내가 되게 은벌레는 계집으로 만들었다. 은벌레와 금벌레를 길러서 부부로 짝을 지어 놓으니 세상 사람이 났구나. 미륵님 세월에는 섬(石)으로 말(斗)로 밥을 [매불리 많이]먹고 인간 세월이 태평하였다.”(창세가 : 1923년 8월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채집된 무가의 일부)- 손진태, 손진태 문학전집(서울:태학사, 1981), 514-516쪽. 백승중, 앞의 논문 521쪽에서 재인용.
 16) 증산도 신도인 어머니는 주문도 엉터리로 할 뿐 아니라, 내세를 기원하며 수행하거나 신도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륵님 전에 비나이다! 음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 천지개벽 심판날에 불쌍한 우리 모자 미륵님이 살피시고 증산 상제님이 돌봐주시사 총알도 비껴가게 맨드소서! 음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흠!”(252쪽)처럼 엉터리 주문을 외며 현실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민중의 기복신앙인 미륵 신앙이 어머니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생명사상을 깨우쳐 주었다는 사실이다. 총살형에 처해질 남편을 위하여 낯선 거한을 미륵의 계시로 받아들인 어머니는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신에게 보시해야 한다는 의무로 일생을 보냈다. 미륵 신앙이 깨우쳐준 세상의 이치였다. 그것은 인연에 의해 태어난 생명을 책임져야 하며, 또한 인태하게 한 신이 보살펴줄 것이라는 믿음의 이치였다. 본래 종교는 제도나 관습을 앞세우는 인간사회보다 생명의 발아와 양육 자체를 가장 우선으로 앞세우는 존재였다. 난리통의 수난을 남편에 대한 보시로 돌리고 사생아 기춘이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한 어머니는 민중만이 지닌 소박한 미륵 신앙에서 생명의식을 배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에미》의 은장도 무용론 서술은 미륵 신앙과 결합하여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생명 그 자체라는 생명의식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명의식은 소박한 민중을 대표하는 모성 이미지로 부각된다.

결과적으로 《에미》의 은장도 무용론 모티프는 민중의 끈질기고 잡초같은 생명력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작가 윤홍길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서, ‘육된 삶’을 살더라도 자식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모성이 조상 할머니의 자결보다는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가의 민중적 모성은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론과는 달리, 개혁 이념과 명분보다는 일상적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명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부계 질서를 대표하여 어머니의 훼손에 징벌을 가한 ‘나’가 어머니의 민중적 모성에 압도당하면서 결국 외삼촌에게 “여자들은 결코 난리에 당하지도 않고 남자에 당하지도 않으며 [...] 여자들은 폭력에 맞서기보다는 난리도 남자도 한꺼번에 다 자기네 내부에다 수용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모성 본능이겠지요.”(324쪽)란 말

을 하면서 모성을 신격화한 것이다.

요약하면 은장도 무용론 모티프는 단순히 모성 지향성을 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민족주의가 지닌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중적 모성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IV. 맺음말

작가 윤홍길은 장편소설 《에미》에서 6.25 전쟁기에 모성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형상화하고 더 나아가 신화화하였다. 전쟁 때, 남편을 살리기 위한 미륵 공양의 결과, 어머니는 사생아를 출산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미륵의 아들로 섬기며 전력을 다해 제대로 된 자식으로 키워내었다.

작가는 이러한 서사를 전달하면서 모성신화를 형성하였는데, 그 형성 과정에는 치밀한 플롯 구성이 있었다. 우선 발단에서 수수께끼를 제시하고, 위기와 반전의 단계에서 재생의식, 미륵 공양, 은장도 모티프 등과 연결하여 어머니의 ‘육된 삶’을 형상화하면서 초인적인 모성을 암시하다가 마침내 어머니가 대단원의 단계에서 부계 질서의 마지막 징벌을 극복하며 모성신화가 완성되도록 플롯을 구성하였다. 어머니는 임종시에 미륵부처를 버리고 남편과 전쟁으로 인한 시련과 위기를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아의 통일성을 보이면서 신화화된다.

담론은 시점과 서술, 인물과의 거리 등의 서술행위인데, 작가는 아들인 ‘나’를 시점과 서술의 주체로 내세워 주인공인 어머니와도 거리를 두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인칭 관찰자 시점서술은 어머니의 주관적인 심리를 거의 드러내지 않아 모성이 무리없이 신화화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여러 번의 은장도 모티프 서술은 세월이 흐름에 따

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변모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중 은장도 무용론(無用論) 서술은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민중적 모성을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측면을 지니게 되었다.

문제는 《에미》의 모성신화가 지니는 모순이다. 신화가 모성에 너무 집착할 때, 어머니가 행한 합환화의 굶판처럼, 여성의 애육을 정화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여성의 욕망을 배제하고, 시련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모성신화가 종속될 수 있으므로, 남은 문제는 이 모순의 해결책이다.

주제어: 에미, 모성신화, 서사구조, 플롯, 담론, 가부장 이데올로기, 희생제의, 미륵 공양, 은장도, 민중적 모성

참고문헌

텍스트

- 윤홍길, 《에미》, 청한문화사, 1991.
_____, 《아홉 쉼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연작소설집), 1977.
_____, 《황혼의 집》(단편소설집), 1976.
_____, 《묵시의 바다》, 문학사상사, 1987.
_____, 《순은의 녀》, 이조출판사, 1987.
_____, 《낫》, 문학동네, 1995.

단행본 및 논문

- 고 은, 「미륵신앙과 민중, 《문학과 지성》 35호, 1979, 봄호.
김병욱/ 김영일/ 김진국/ 최정무 편, 『문학과 신화』, 예림기획, 1998.
김삼룡,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3.
김송은, 「윤홍길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7월.
김수진, 「윤홍길 소설의 주제와 기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
어교육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0, 2월.
김세원, 「연작소설의 서사구조 연구-아홉 쉼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중
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년
6월.
김원홍/이인숙/권희완 공저,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백승중, 「한국에서의 미륵 신앙의 역사적 전개」, 《원불교사상》 21호,
1997, 12월.

- 서은선, 『최인훈 소설의 서사 형식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_____, 『미륵 신앙과 모성신화』, 《여기》3호, 부산 세종출판사, 2005, 여름.
-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수잔 스나이더 랜서,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8.
-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 이상우,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 임주탁, 「가락국기 서사의 형성과 전승」, 《지역문학연구》, 2004, 가을.
-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 표일초, 「미륵신앙과 민중불교」, 《담수》 제 16호, 담수회, 1987, 10월 호.
- 황경숙, 「영동할미와 삼신할미에 대한 명상」, 《여기》3호, 부산 세종출판사, 2005, 여름.

<Abstract>

A Study on Forming the Myth of Maternity
in Yoon Heung-Gil's Novel, 『Mother』

Seo, Eun-Seon

In his novel, 『Mother』(1991), Yoon Heung Gil formed the image of an ideal mother who depends on maternity in overcoming sufferings and further mythified her.

The mother sacrificed herself to save the life of her husband during the Korean War, and finally delivered an illegitimate child. She respected the child as the son of Maitreya and raised him with her full efforts into a decent son. This narrative is developed under a plot which focuses on solving mysteries. In his novel, Yoon Heung Gil is sometimes materializing the consciousness of re-birth, sacrificial offerings and ‘eunjangdo’ as a motif by using techniques of confrontation and reversal. In the final part of the novel, the mother abandons Maitreya and transcends all her sufferings and grudges by herself. In other words, she reaches a divine state with unified self, becoming mythified.

Discourse is referred to as dealing with point of view, narration styles and distance from characters. In the novel, the author maintains an objective narration in which the son as ‘I’ becomes the speaker and narrator and keeps himself distant from his mother. In that narration, the mother’s emotions are not revealed, but instead she

is regarded as the subject who accepts her fate and sufferings under her responsibility. This supports forming the myth of maternity in the novel. In the novel, ‘eunjangdo’ is often used as a motif. Especially, some writings that ‘eunjangdo’ is useless suggest universal maternity which stresses respect for life itself and further deliver a message that patriarchy-based ideology should be overcome.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above mentioned ideology might deepen the myth of maternity, so it might be taken for granted to suppress women’s desires and force their suffering and sacrifice. This should be dealt with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when 『Mother』 was written and the present.

Key Words : *Mother*, myth of maternity, plot, discourse, *eunjangdo*, Maitreya